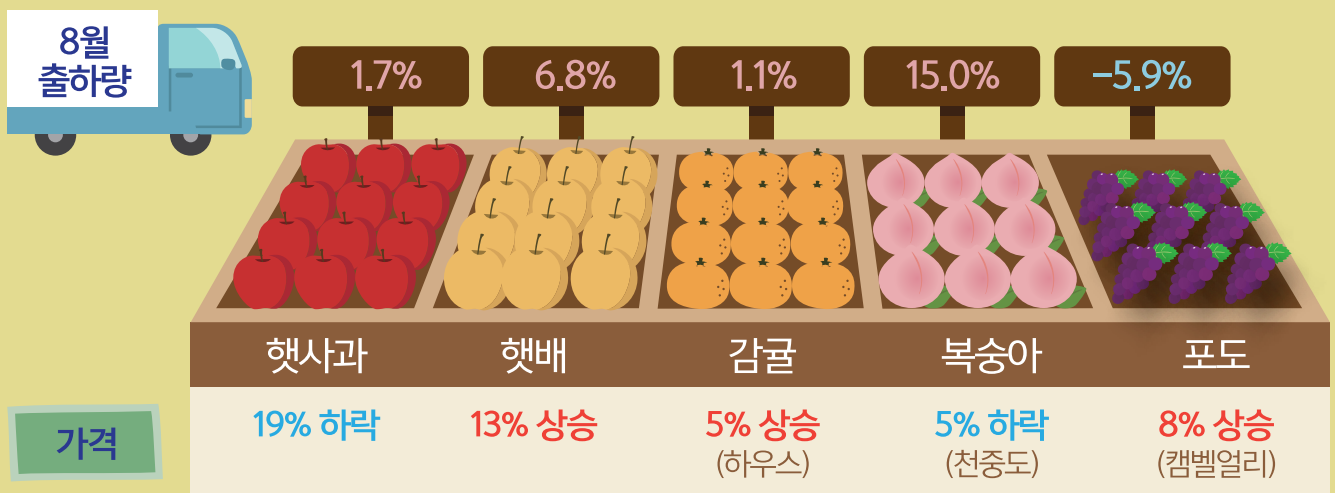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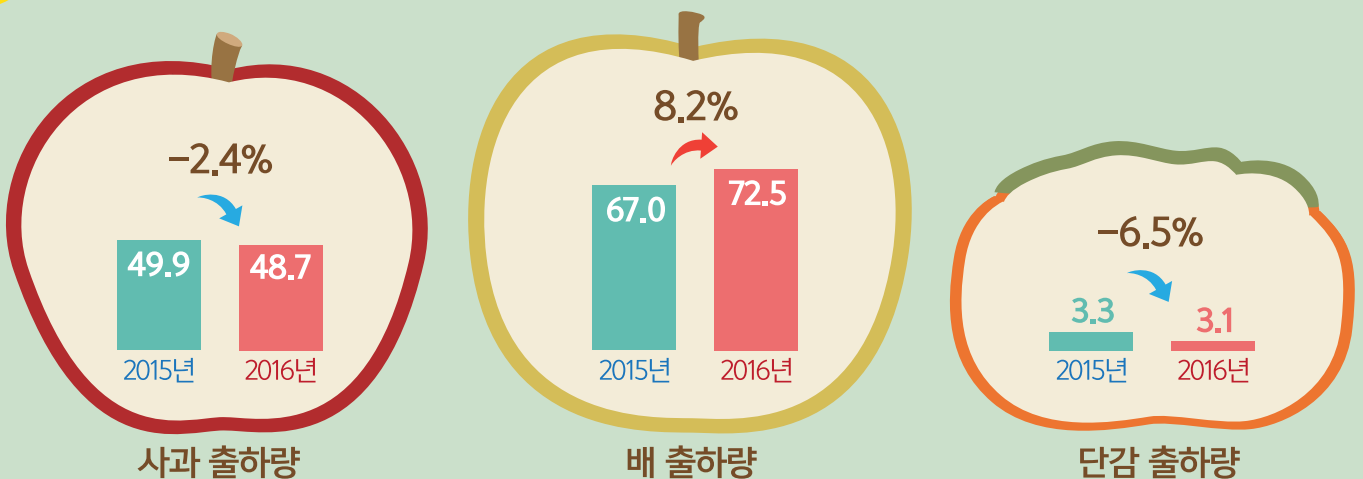


8월과 추석 시기 과일 공급은 원활할 전망

포도 제외한 8월 과일 출하량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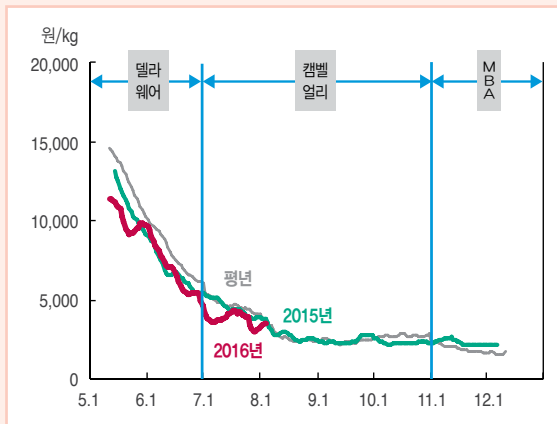


추석 시기 과일 공급 차질 없을 전망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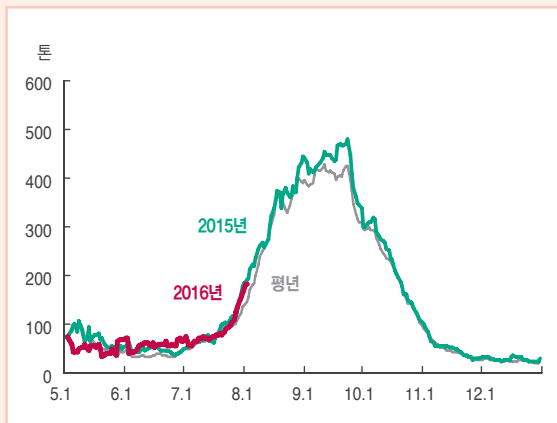
포도

■ 포도 도매가격(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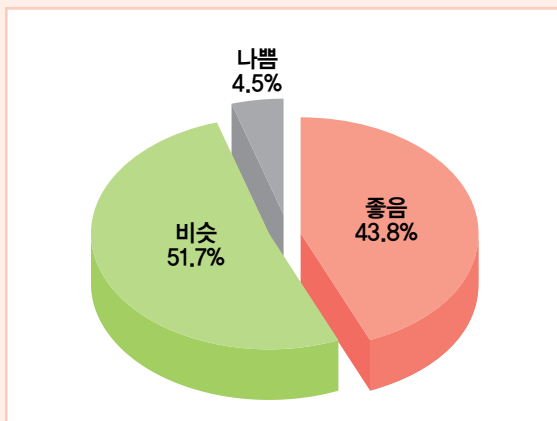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포도 반입량



주: 평년은 2011~15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노지포도 생육상황(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동향

7월 캠벨얼리 가격 전년보다 낮고, 거봉은 높아

- 7월 캠벨얼리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7,500원(중품 6,400원)으로 전년보다 7% 낮고, 거봉은 1만 2천원(중품 1만원)으로 전년보다 4% 높았다.
- 포도 반입량은 전년보다 20% 가량 적었으나, 캠벨얼리는 열과 발생 및 당도 저하로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육

포도 생육 매우 양호

- 7월 말 기준, 노지포도 생육상황은 봄철 이후 기상 양호하여 전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병해충 조사결과, 병 발생은 거의 없으나 고온이 지속되면서 노린재와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발생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촌진흥청(8.1.)에 따르면, 돌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과수원과 인접 산림 등에 대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 포도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

		거봉(2kg)			캠벨얼리(5kg)		
		7월	8월	9월	7월(2kg)	8월	9월
2016년	상품	11,884	(9,708)		7,499	(17,692)	
	중품	10,167	(8,370)		6,375	(9,753)	
2015년	상품	11,466	7,743	7,892	8,028	13,945	12,167
	중품	10,007	6,737	5,729	6,774	9,193	9,398
평년	상품	12,957	10,081	9,179	9,497	15,731	14,341
	중품	11,567	9,610	7,015	8,439	10,893	11,400

주: 1) 평년은 2011~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2) ()는 1~5일까지 평균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포도 생육 양호하나, 면적 줄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감소 전망

생산전망 올해 포도 생산량 전년보다 6% 감소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생육이 양호하지만, FTA폐업지원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6% 감소한 24만 4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품질 8월 포도 품질 양호할 듯

- 8월에 출하될 포도의 품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온이 높고 일조량도 많아 당산비와 착색상태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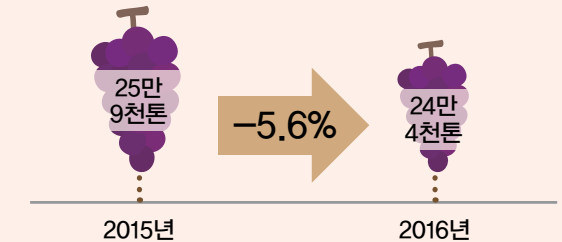
출하전망 8월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8~9월 포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각각 6%, 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생육기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증가하여 포도 수확시기는 전년보다 5~7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전망 8월 포도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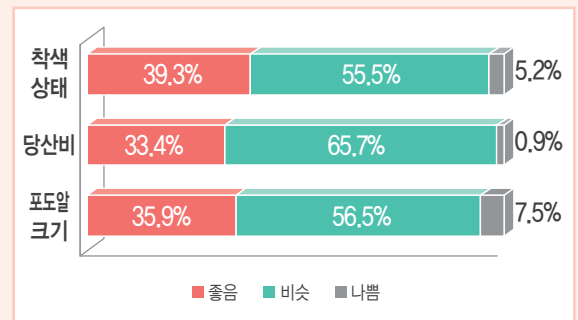
- 8월 포도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체과일인 복숭아·자두 출하량이 많아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전년(1만 4천원)보다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4천~1만 6천원, 거봉은 상품 2kg 상자에 8,500~9,500원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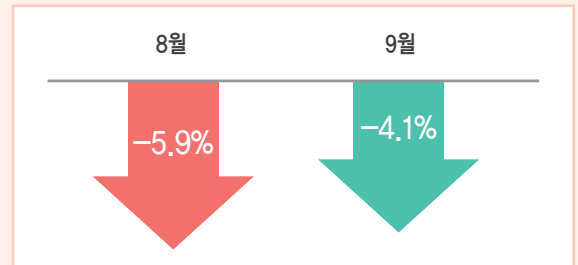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8월 포도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출하량 증감률(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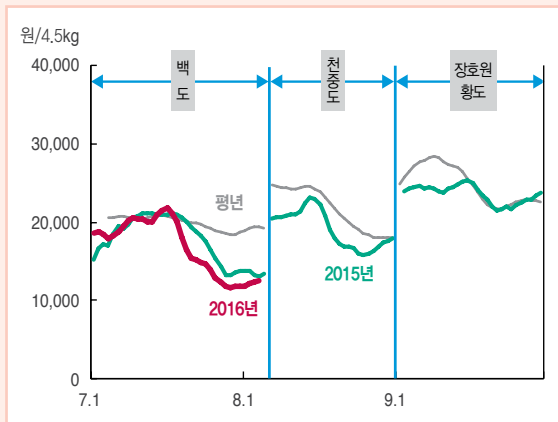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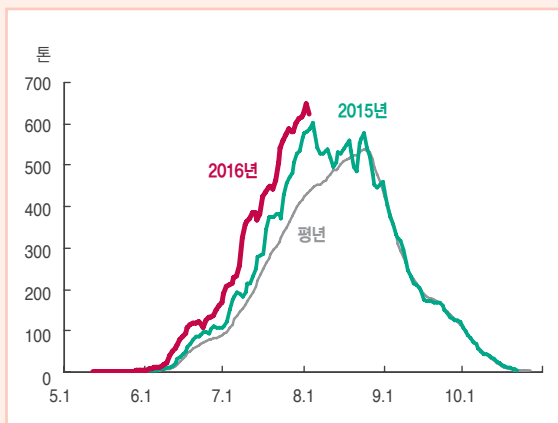


■ 유모계 복숭아 도매가격(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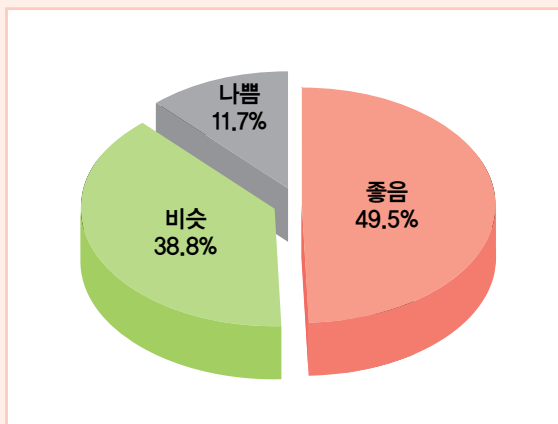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복숭아 반입량



주: 평년은 2011~15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생육상황(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동향 7월 백도 가격 전년보다 5% 하락

- 7월 백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5% 하락하였다. 이는 유모계 생산량 증가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6% 많았기 때문이다.

생육 생육 전반적으로 양호

- 7월 말 기준, 복숭아 생육은 기상호조로 전년과 같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월에 이어 현재까지도 세균성구멍병(천공병) 발생률이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해충피해는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충북 충주에서 미국선녀벌레 발생이 전년보다 많아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전망 생산량 전년보다 17% 증가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7% 많은 27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 유모계 복숭아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4.5kg

		백육계		황육계	
		7월	8월	9월	
		백도	천중도	황도	장호원황도(엘버트)
2016년	상품	17,286	(19,153)		
	중품	11,557	(14,391)		
2015년	상품	18,185	18,963	19,169	23,520
	중품	12,362	14,341	14,085	15,051
평년	상품	19,603	21,717	21,546	24,325
	중품	13,330	14,836	15,423	16,287

주: 1) 평년은 2011~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2) 7월 백도 가격은 아까즈끼, 8월 황도는 선골드 등이 반영된 가격임.

3) ()는 1~5일까지 평균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8~9월 출하량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전망

- 중부지역의 수정불량과 전국적인 세균성구멍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증가폭이 커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천도계 생산량은 저온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20% 증가하고, 유모계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1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숙기별 생산량은 조생종의 경우 전년보다 18%, 중·만생종은 각각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8월 복숭아 품질 전년보다 좋을 듯

- 8월에 출하될 복숭아 품질은 생육기 기상이 양호하여 크기와 당도, 색택 모두 전년보다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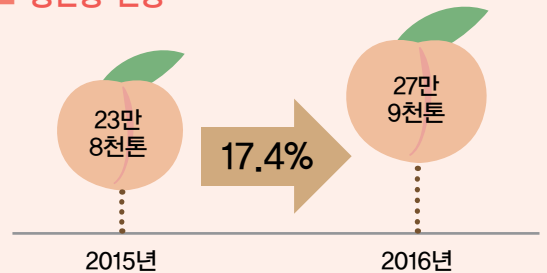
출하전망 8월 이후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8월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5%, 9월 이후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8월 천중도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8월 천중도(유모계)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9천원)보다 낮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7천~1만 9천 원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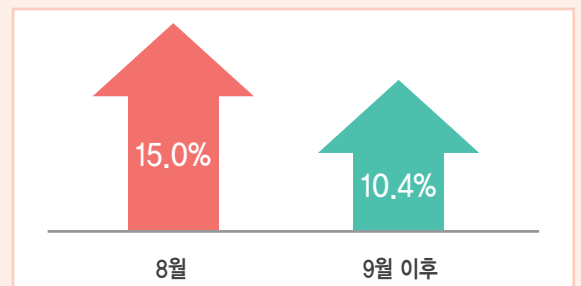
■ 품종별 생산량 전망

단위: 천 톤, %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계
천도계	2016년	20	23	19	62
	2015년	17	19	15	51
	증감률	20.1	19.5	20.2	19.9
유모계	2016년	56	91	71	217
	2015년	48	78	61	186
	증감률	17.5	16.9	15.9	16.7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복숭아 출하량 증감률(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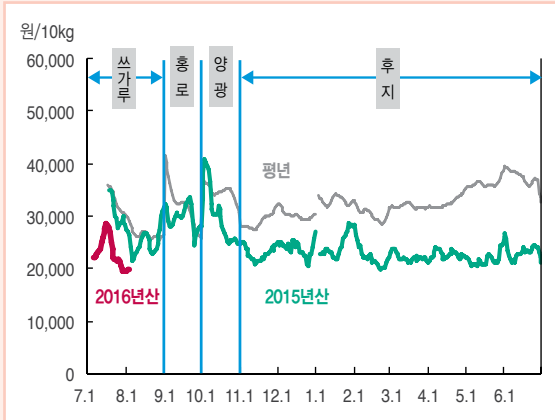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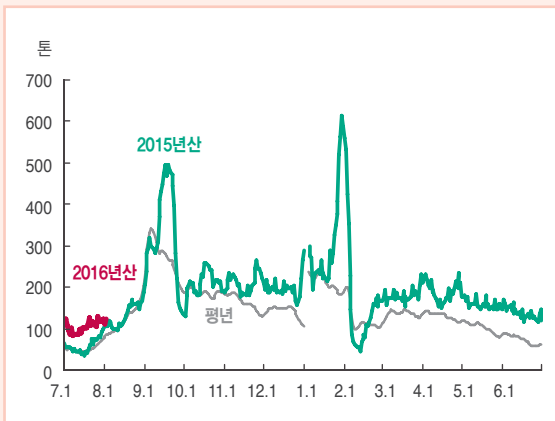
사과

■ 사과 도매가격(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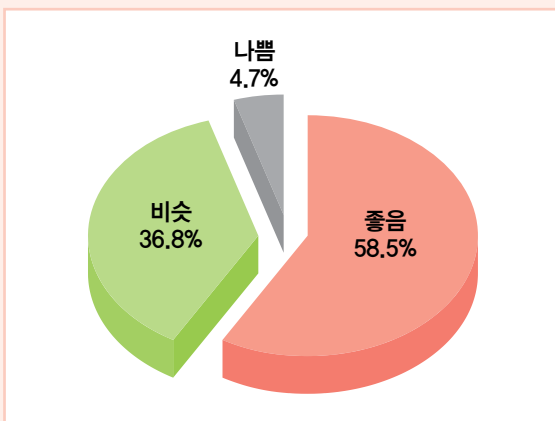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사과 반입량



주: 평년은 2011~15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생육상황(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동향 7월 햇사과 가격 전년보다 24% 낮아

- 저장사과인 후지 7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6천원(중품 1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37% 낮았고, 햇사과인 쓰가루는 2만 4천원(중품 1만 7천원)으로 24% 낮았다.
- 7월 사과 가격이 낮았던 이유는 전체 반입된 물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생육 생육 상당히 양호

- 7월 말 기준, 사과 생육은 기상여건이 좋고, 병해충과 생리장해도 크게 발생하지 않아 전년 및 평년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최근 고온현상으로 복숭아순나방·진딧물·노린재·응애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리장해인 밀 증상(씨방부근에 꿀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투명한 사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다.

■ 사과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0kg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쓰가루	홍로	양광	후지		
2016년	상품	23,570	(20,638)				
	중품	17,452	(14,372)				
2015년	상품	31,013	24,614	42,295	29,638	30,770	22,766
	중품	20,750	16,968	30,155	21,153	25,456	15,412
평년	상품	33,060	26,412	48,906	32,032	33,881	28,872
	중품	24,442	19,018	33,819	22,309	28,358	20,736

주: 1) 평년은 2011~15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2) ()는 1~4일까지 평균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 전년보다 2% 적겠지만, 평년보다 많을 전망

생산전망 생산량 전년보다 3% 감소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로 전년보다 3%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56만 8천톤으로 전망된다.
- 조생종인 쓰가루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겠으며, 추석용 사과인 홍로는 비대가 매우 원활하여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 8~9월 사과 품질 매우 양호할 듯

- 생육기 기상이 양호하여 8월 쓰가루 품질은 전년보다 좋겠으며, 추서에 출하될 홍로 크기는 상당히 크고, 당도와 색택도 양호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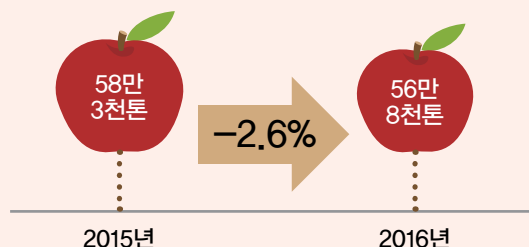
출하전망 8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추석 공급도 원활할 전망

- 2016년산 8월 햅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쓰가루 출하량이 전년보다 다소 적겠지만, 추석이 일러 홍로 출하가 당겨짐에 따라 전체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2%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4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추석이 9월 중순으로 홍로는 대부분이 출하 가능하지만, 숙기가 다소 늦은 후지조숙계(료카, 히로사키)는 전년 출하량의 60~7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전망 8월 햅사과 가격 전년보다 낮을 듯

- 8월 쓰가루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5천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9천~2만 1천원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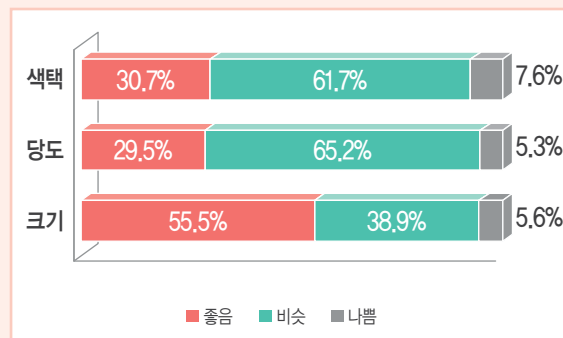
■ 품종별 생산량 전망(전년 대비)

단위: %

	후지	후지조숙계	쓰가루	홍로	양광	감홍
증감률	-4.0	-1.8	-0.2	1.2	-1.6	-6.7
면적비중	62.6	6.6	4.6	15.7	2.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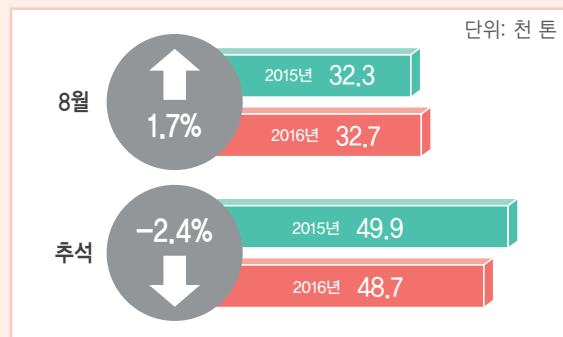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추석 홍로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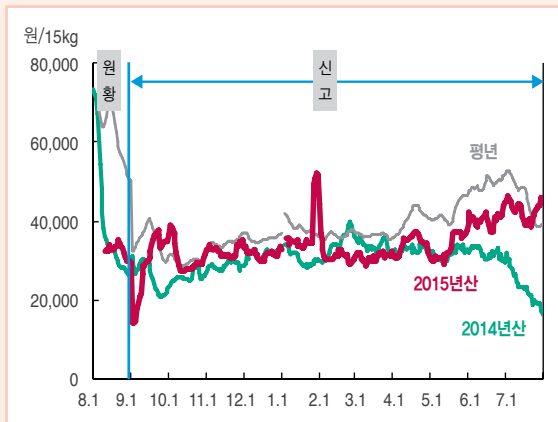
■ 햅사과 출하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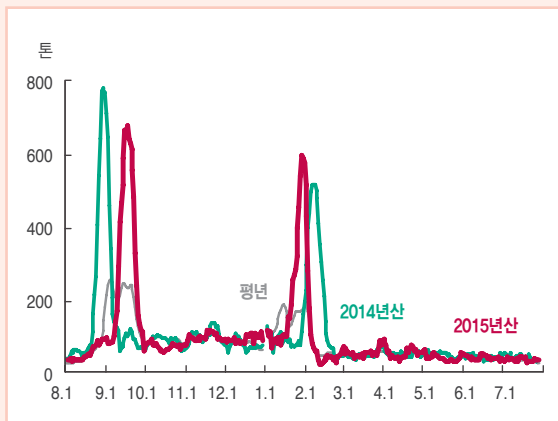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배 도매가격(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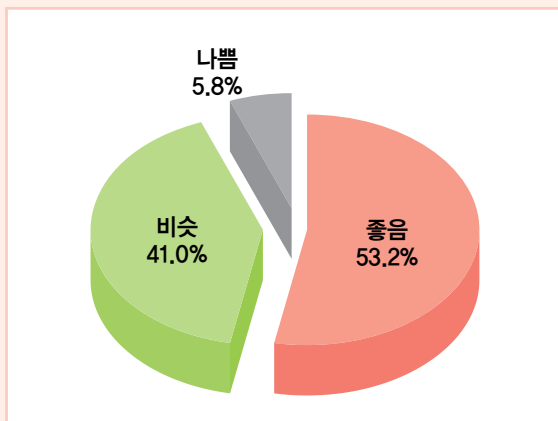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배 반입량



주: 평년은 2011~15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생육상황(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동향 7월 가격 전년 대비 강세, 등급별 가격 편차 커

- 7월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적어 전년보다 86% 높고, 평년보다는 7%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3천원이었다.
- 저장배 품질 저하로 등급별 가격 차이가 커져 상품 대비 중품의 가격 수준은 전월 65%에서 51%로 낮아졌다.

생육 배 생육 매우 양호

- 7월 말 기준, 배 생육은 기상호조로 전년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고온으로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심식나방, 응애·진딧물 발생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전망 작황호조로 생산량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8만 3천톤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작황호조로 단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배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5kg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신고		원황	신고		
2016년	상품	33,767	40,788	42,520			
	중품	20,984	26,647	21,459			
2015년	상품	31,592	31,813	22,902	32,358	27,995	30,762
	중품	21,384	21,567	13,086	25,251	18,033	21,743
평년	상품	42,691	49,870	45,515	42,976	35,037	29,880
	중품	29,211	35,205	26,287	34,020	24,482	22,865

주: 평년은 2011~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 전년 대비 8% 증가 전망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충청지역 생산량이 전년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은 생육이 매우 원활하지만 재배면적 감소폭이 커 전년 대비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남지역 생산량은 전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는 저온피해와 흑성병으로 단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품질 햇배 당도 전년보다 높지만, 모양은 좋지 않을 듯

- 8월 중순부터 출하될 햇배의 크기는 전년보다 크고,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 모양은 만개기 고온으로 인해 체와부돌출과(숫배) 발생이 많아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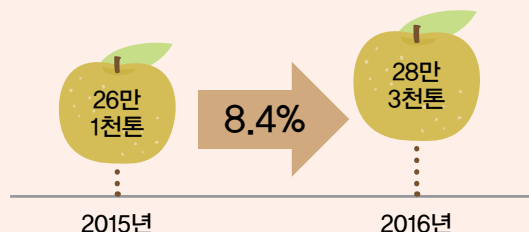
출하전망 8월과 추석시기 배 공급은 원활할 전망

- 저장배 잔여물량은 전년보다 적으나, 햇배 생산량 증가로 8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7%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는 추석이 일러 2016년산 신고도 8월 말부터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와 추석용 배 조기수확을 위한 착과량 조절 등으로 전년보다 8% 많은 7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8월 햇배 가격 전년보다 높을 듯

- 8월 햇배 원황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겠으나, 저장배 가격강세 영향으로 전년(3만 2천원)보다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5천~3만 8천원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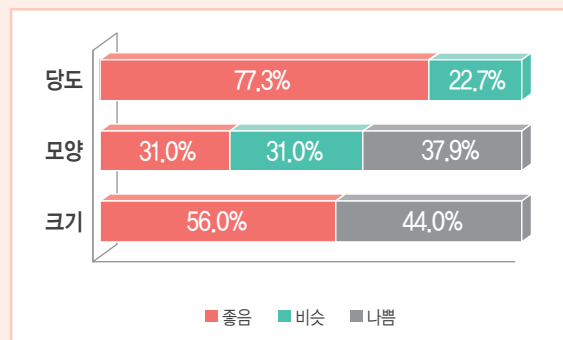
■ 지역별 생산량 전망(전년 대비)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증감률	2.5	3.8	8.0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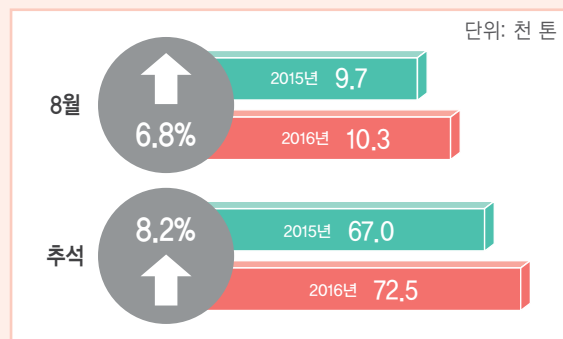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8월 햇배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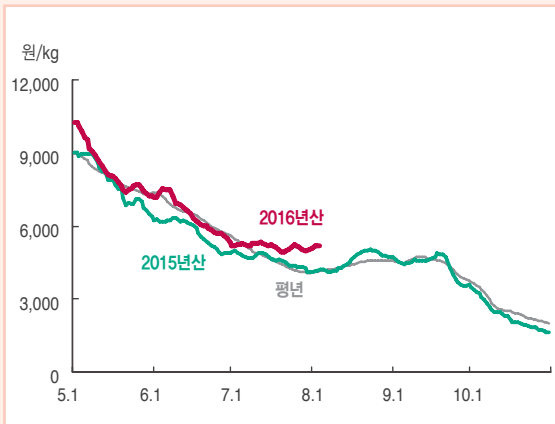
■ 햇배 출하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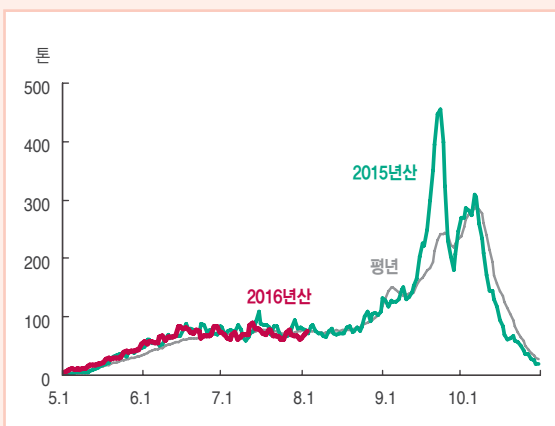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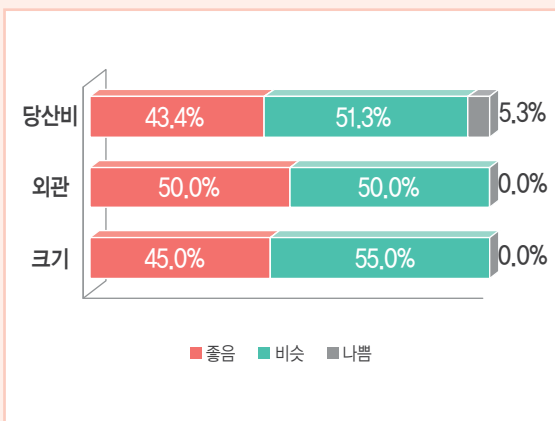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하우스온주 출하량



주: 평년은 2011~15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8월 하우스온주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동향 7월 하우스온주 가격 전년보다 높아

- 7월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은 kg당 5,100원으로 전년보다 12% 높았다.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9%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품질 8월 하우스온주 품질 전년보다 양호

- 8월에 출하될 하우스온주는 여름철 기상여건이 양호했고,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 외관과 당산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실의 크기 역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S~M과의 출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인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우스온주 월별 평균도매가격

단위: 원/kg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016년	7,913	6,504	5,130	(5,186)		
2015년	7,169	5,701	4,616	4,600	4,446	2,726
2014년	8,223	6,213	4,706	4,215	4,012	2,533
2013년	7,976	6,508	5,533	5,621	5,296	3,209
평년	7,751	6,174	4,820	4,287	4,371	3,119

주: 1) 전국 9개 공영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임.

2) 평년은 2011~15년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3) ()는 1~3일까지 평균가격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 전년보다 12% 증가

가격전망 8월 하우스온주 가격 전년보다 높을 듯

- 8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아 전년(4,600원)보다 다소 높은 kg당 4,600~5,100원으로 전망된다.

노지작과 노지온주 착과수 전년보다 14% 증가

- 올해 노지온주의 단위면적당(10a) 착과수는 전년보다 14%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제주시의 착과수가 전년도보다 27% 증가한데다, 서귀포시는 전년도 생산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과수가 6%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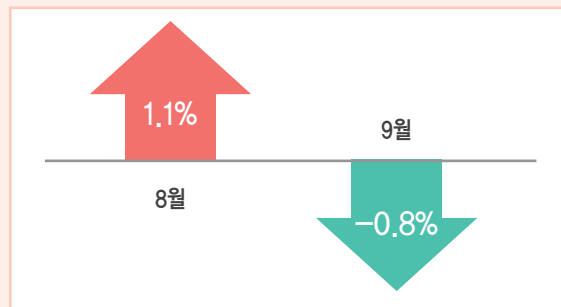
노지생육 노지온주 생육 양호

- 7월 말 기준, 노지온주의 생육은 기상여건이 좋아 원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병해충 발생도 전년과 비교하여 많지 않지만, 제주 북부와 서부지역의 더듬이병 발생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지생산 노지온주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58만 3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 감소하였으나, 착과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7월 2차 생리낙과기에 낙과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량 추정치는 전월(15%)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 하우스온주 출하량 전망(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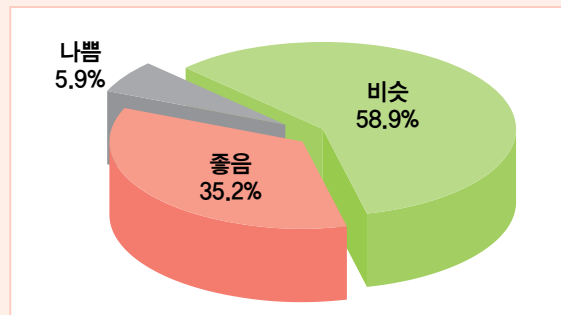
■ 노지온주 단위면적(10a)당 착과수(전년 대비)

단위: %

	제주시	서귀포시	전체
증감률	27.0	6.3	13.6
면적비중	35.5	6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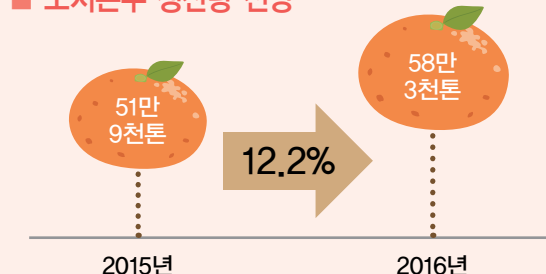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노지온주 생육상황(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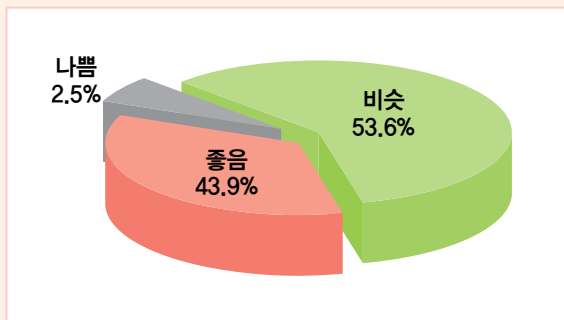
■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생육상황(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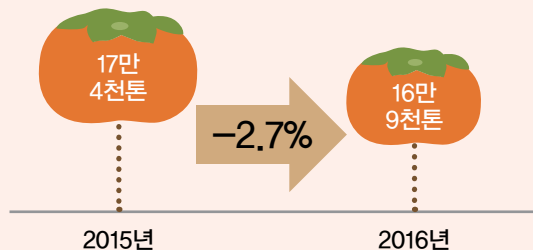
■ 단위면적(10a)당 착과수(전년 대비)

단위: %

	많음	비슷	적음
경남	30.8	51.5	17.7
경북	30.0	70.0	0.0
전남	24.1	65.2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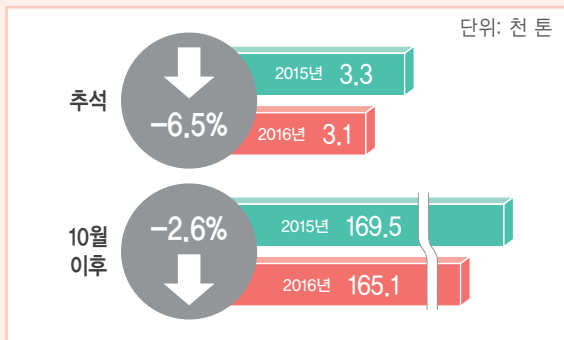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생산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단감 출하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9일 기준 전망치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생육 단감 생육 매우 양호

- 7월 말 기준, 단감의 생육상황은 기상호조로 인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병해충 조사결과, 전반적인 병해충 발생은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경남 창녕·창원에서 미국 선녀벌레 발생이 증가하였고, 전남 영암·장성에서는 탄저병 발생으로 낙과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착과수 착과수 전년보다 증가 추정

- 단위면적(10a)당 단감 착과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의 착과수 증가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과 전남지역의 착과수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전망 올해 단감 생산량 전년보다 3% 감소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3% 감소한 16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육이 원활하여 단수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격불안정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출하전망 추석 성수기 출하량 전년보다 7% 감소 전망

- 올해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 출하량은 3천톤으로 전년보다 7%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3천톤으로 전망된다.
- 이는 추석이 전년보다 빨라 태추·상서 등 다양한 품종의 출하가 어려운데다 생산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향 7월 과일 수입량 전년보다 5% 증가

- 올해 주요 과일의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1~7월)보다 6% 증가한 50만 7천톤이었다. 7월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5% 증가한 5만톤이었다.

키위·자몽 8월 키위 수입 전년보다 증가, 자몽은 감소 전망

- 7월 키위 수입량은 뉴질랜드산 생산량 증가와 관세인하(45→30%)로 전년보다 30% 많았으며, 8월에도 수입량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자몽 수입량은 남아공 산지의 우박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4% 적었으며, 8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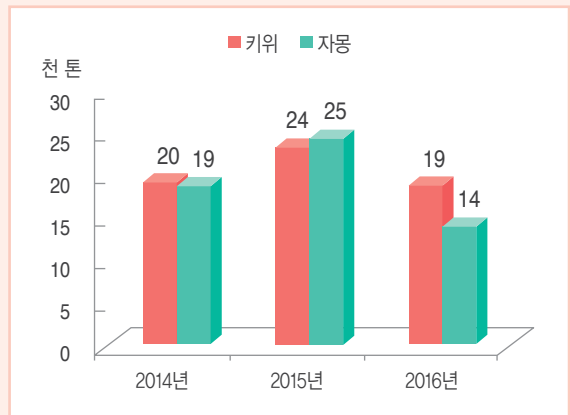
체리·망고 8월 체리 수입 전년보다 증가, 망고는 감소 전망

- 7월 체리 수입량은 미국 북서부지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74% 많았으며, 8월 수입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망고 수입량은 대만의 현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60% 적은 475톤이었으며, 8월에도 수입량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나나·파인애플 8월 바나나·파인애플 수입 전년보다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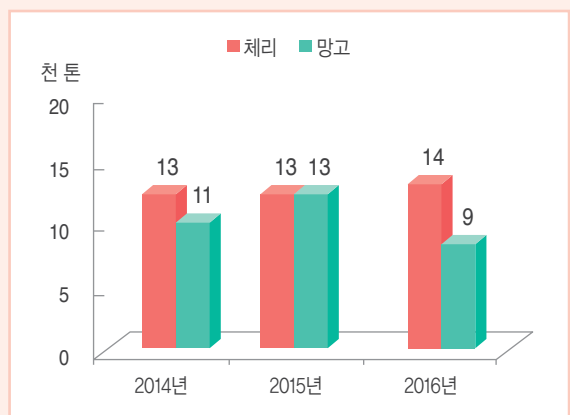
- 7월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량은 필리핀 현지 가뭄으로 전년보다 각각 1%, 8% 감소하였으며, 8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4~5월에 필리핀에서 내린 비로 향후 10~11월에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 키위·자몽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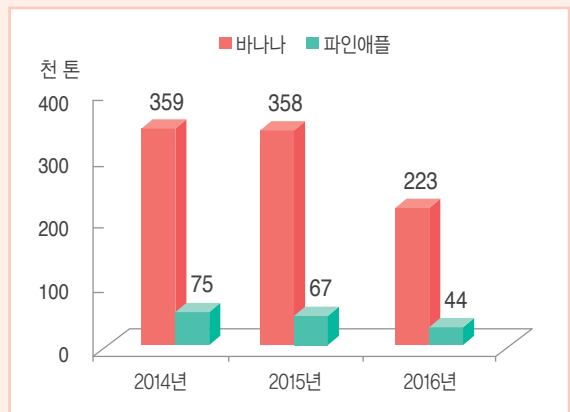
주: 2016년은 1~7월까지 물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 체리·망고 수입량



주: 2016년은 1~7월까지 물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바나나·파인애플 수입량



주: 2016년은 1~7월까지 물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8월과 추석시기 과일 공급은 원활할 전망

포도 제외한 8월 과일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8월 복숭아·햇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각각 15%, 2% 많아 가격은 낮을 전망
- 8월 포도 출하량은 전년보다 6% 적어 가격은 높을 전망
- 8월 햇배 가격은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장배 강세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을 전망
- 8월 감귤 가격은 출하량 조금 많지만 품질 매우 좋아 전년보다 소폭 높을 전망

올해 추석 성수기 과일 공급은 차질없을 전망

-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2%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4만 9천톤 전망
-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8% 많은 7만 3천톤 전망
- 단감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전년보다 7%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3천톤 전망

올해 사과·포도·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 배·복숭아·감귤은 증가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로 전년보다 3% 적을 전망
- 포도와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각각 6%, 3% 적을 전망
- 배·복숭아·감귤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각각 8%, 17%, 12% 많을 전망

■ 2016년 주요 과일 생산량 전망(전년 대비)

단위: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노지)	단감
증감률	-2.6	8.4	-5.6	17.4	12.2	-2.7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관측 2016년 9월호 예고(예정일자: 2016. 9. 7)

- **가 격 동 향**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 **출 하 전 망**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 **생 산 전 망**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이 『농업관측월보』는 인터넷(<http://aglook.krei.re.kr>)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KREI 회원】에 가입하시면 과일관측월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61) 820-2366 FAX: 061) 820-2410
<http://www.mafra.go.kr> ☎ 044) 201-2252 FAX: 044) 868-0132

- 담당자 : 성명환(과일과채관측실장), 신유선(사과), 이미숙(배, 포도), 강지석(감귤, 단감), 박지연(복숭아, 수미과일), 김수빈(그레픽)
- 감 수 : 송미령(농업관측센터장)

이 「농업관측(과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농업인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 및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과일 관측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품목에 대하여 매월 7일에 발표됩니다.

월보 및 속보 관련 정보를 SMS 문자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또는 담당자(061-820-2285)에게 연락바랍니다.